

공개 경쟁하에서 무선국 수용 가능치의 1/2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류가 발명한 각종 가장 영속하고 생산적
발명품인 전파를 어떻게 구사해다가 소용이
모서롭고 만물수능 없었는 것이다. 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민주복지
국가 건설에 힘의력을 막강 해야겠다.

나. 전파차원의 수요

전파차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는 선진
국들이다. 우리나라의 전파차원의 수요는
현 무선국 증가상향과 같은 것은 단연코
아니다. 우리나라는 무전기사용에 대하여
관이나 민 모두 아르레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4년전 관공용
위키 토크가 발달했다가 행정당국의 제지로
지금 위키 토크를 가지고 노는 아르레기들은
볼수가 없게 되었다.

전파이용의 부정적 측면만은 너무 증식하여
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안보문제, 무전기를 이용한 범죄증가,
방해전파 발생으로 인한 전파환경 오염등을
신과 안할수가 없으나 국민 복지증진과 전파
기술습득,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한
대외 홍보 활동등을 감안한 긍정적 측면에서
수요 촉진정책을 강력히 시행하여야 할것이다.
무선국의 증가없이 전파관리와 활성화는 가처
울수 없는 것이다.

외국에 있어서는 무선국의 이용비용이 전체
무선국에 시민이 사용하는 무선국의 경우
일본은 1971년도 전체 무선국의 53%, 미국은
1966년도 63%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982년
대비 2%로서 시민 이용은 거의 제한된 상태에
있다.

다음은 시민이 전파를 간편하게 이용할수 있는
정보 전송 시스템으로서 이를 허가해줄 경우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수요(전파사용료등) 징수 방안은
검토하여야 할것이다.

0 신호 피이저 (포켓벨)

가정이나 직장에서 출퇴근인 사람을 호출코저
할때 휴대하고 있는 수신기(포켓벨)에 전파를
발사하여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1983
년에 일반인에게 개망 5,000명 가입자를 상대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각종 판매원이나 보
업직관등 다양하게 이를 이용할수 있을 것이
다.

0 코드텍스 텔레폰

전화기에서 악가 뱉어저 있을때 직접 전화를
통화하며 전화기 있는곳까지 가지 않고 자기가
휴대하고있는 코드텍스 텔레폰으로 송·수화를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관계 당국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단시일내에 사용
할수 있을것이라 기대된다.

0 식민 락디오 (간이무선국)

선진국에서는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시스템
으로 5마일내지 15마일내에서 (자동차내에서
까지) 서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제도로 정보전
달의 신속, 교통대체 효과등을 도모할것이며 전파
관리세입의 일익을 담당할수 있을 것이다.

상기 간이무선국은 유사시 군 및 예비군, 민방위
지원용으로 전환 사용될수 있으며 치안 유지 용
으로도 사용할수 있을 것이다.

의명 경찰단등 사건시 각부락에 간이무선국이 있
었더라면 그와 같은 많은 인명피해는 줄였으리
라 예상되며 82년 세계 정보의 대회 마치고 상경

하는 수십대의 버스 통제를 무전기로서 알중간
뒤등에서 추월방지 속도 조절등을 지휘 하였드
라던 고속도로 선상에서 차량사고는 막았으리라
예측해본다.

다. 아마추어 무선국의 저변확대로 국위신양

아마추어 무선국은 세계 300여 국가에 햄인구
300만명으로 민간 외교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중대되고 있다.

더구나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 올림픽에 대비한
홍보 매체로서 햄인구를 동원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경이 없이
자유 왕래하는 전파는 소련등 공산권에 까지 전달
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햄인구를 통한 세계 공존협력도 기대해볼수
있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 햄인구수 1980년말

국명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독일	비율비
인구수	619	50만	40만	30만	30만	20만	1만	1만

우리보다 뒤 떨어져고 있는 태국, 비율비가 각각
1만명이 되는 것은 주목해야 할것이다.

1) 햄인구 관리

불과 10년전만 하더라도 아마추어 무선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 무선국을
설치하기란 좀처럼 쉬운일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아마추어 무선기사 검정 합격자

가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수수료가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80백가 달고 7국만 남미권가가 우리보다 적게 든 데도 각종 수수료를 일본의 2백 내지 5백가 높은 실정임은 감안할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자들이 수수료를 이로서 전파관련비율 부담하여야 함것이다.

나. 전파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통신부 장관은 전파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조정과 전파관련의 관한 법령의 입안 방송방식 및 방송국 지국 계획, 전파관련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 관청과의 연락, 무선국의 허가 및 면허와 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 주파수 이용계획의 수립등의 중요한 정책사항의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정책결정은 하기 위한 차관 또는 심의 기구가 없으면 행정적 집행행위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 계의 권의 차관 구상된 전파관리심의 위원회 설치를 전파정책, 전파법령, 전파기술 기관, 무선국의 허가 기준 심의 등 중요 정책결정의 차관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행정수용 택제원칙

행정은 사회가 맡고 행정의 뒤따를 수 발전행정은 기대할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의 행정은 기술 개발의 좌표가 되는 것으로 산업발전의 신장 또한 자책요인이 된다.

시의상 있는 것뿐만 행정좌표를 제시하고 행정의 기술 발달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것이다. 즉 새로운 전파기술 시스템이 개발 되었는 데 이에 대한 기술 기준(행정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4. 결론

인류가 전파를 발견한 것은 100여년밖에 안되지만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모든 분야에 필수적인 전채로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 사회를 만 이서 정보 혁명시대를 맞이 함에 있어 전파의 역할은 중차대한 것이므로 나아가 우주시대도 향하는 데 전파는 선택적

역사의 불과 같다고 볼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파 비영계 정책하에서 38만국의 무선국들은 운영할수 있는 기술적 여건하에서 아직도 그의 1/7밖에 무선국들은 운영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파관련 정책명세서도 1982.7.31. 전핵부별기차 회의에서 개정.행렬의 외교에서 "개발행정책은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1982.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무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사회로부터 먼저 개발합식"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개발 정책, 정책의 강력한 추진 방침에 따라 정부의 이용도 전국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다면 10년 이내의 시간과 과 같이 100만국 이상외 무선국들은 보유하게 될것이다.

아마추어 무선국 전파 확대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외신앙과 민간의외에 기여토록 하여야 함것이며 특히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올림픽 게임의 정보통신 확대하는 전세계 400만이 넘는 해외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핵연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함것이다.

(1982년도 제 63회 전국 체육대회사 아마추어 무선연맹 마산연맹 사무소 회원들이 체육대회 상황을 세계 행들에게 방송하여 오스트리아와 아르헨티나의 행들과 고신하여 체육대회 홍보에 기여 하였음. 중앙일보 82.10.18자 9면 참고)

또한 국제적으로 볼 때 정치, 경제, 사회적 면면으로 국제 평화 달성 노력은 구구간 이해 상반등으로 수포화 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가치와 신뢰 및 또 등의 공동본모를 발견해 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시대가 열릴 확충하여 이를 이용한 국제간 신뢰와 봉사뿐만 인류의 번영과 국제 평화에 기여해야 함것이다.

전파관리비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만 수의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무선국 수수료를도 서비스 원가에 미치지 못 함것으로 조정되어야 함것이다.

우리는 이소중한 전파자원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당국, 학계, 산업계, 관련단체, 국민 모두가 전파 기술 연구 개발과 이용 증대를 통한 전파관련 생활상화에 기여 하여야겠다.

참고문헌 : 이영안(전파관리국장)저의 "자원면역"역시 보면 전파"통신지 통신 251호